

# 대학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폐과를 경험한 대학생에 관한 질적 연구

## A Qualitative Research on University Students who Experienced Closing Department in the Restructuring Process of University

김택호\*, 최민희\*\*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Tack-ho Kim(kimtackho@hanmail.net)\*, Min-hee Choi(mini2961@hanmail.net)\*\*

### 요약

본 연구는 대학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폐과를 경험한 대학생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과를 경험한 대학생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경험의 본질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연구대상자는 대학 생활 중 폐과를 경험하게 된 대학생 중에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6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질적 연구방법인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절차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8개의 본질적 주제와 16개의 드러난 주제가 도출되었다. 8개의 본질적 주제로는 '심리적 어려움의 촉발사건', '폐과 결정에 따른 부정적인 정서 심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자포자기', '부적절한 대우', '어려움의 극복을 위한 노력', '후회와 아쉬움', '수용하기'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폐과의 상황에 놓인 학생들에게 심리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폐과가 되는 이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학생들의 알권리 보장해주기', '대안책 마련', '정서적 케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대학 구조조정 | 폐과 | 현상학 | 질적 연구 |

### 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the university students who experienced closing department in the restructuring process of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at kind of experience university students have experienced and to understand the essence of the experience in depth. For this purpose, the subjects of the study conducted in - depth interviews with 6 students who expressed their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e study. Results of the study were analyzed through the phenomenological study procedure of Giorgi,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s a result, eight essential themes and sixteen sub themes were derived. The eight essential themes are 'an event of a psychological difficulty', 'deepening a negative emotions', 'anxiety about the future', 'desperation', 'discrimination', 'efforts to overcome difficulties', 'regret and sorrieness' and 'acceptance'. Participants in this study suggested ways to reduce psychological difficulties for students who were in closing department condition. Participants said that they needed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about closing department, provide students with the right to know, prepare alternative plans, and emotional cares.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are discussed.

■ keyword : | University Restructuring | Closing Department | Phenomenology | Qualitative Research |

## I. 서론

###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 현상과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인구변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맞서 교육부는 2014년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령인구 급감 및 수요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앞으로 10년 동안 대학 입학자원이 급격히 줄어들어 2023학년도에는 현재의 입학 정원보다 16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1]. 정원과 고교졸업자 수의 역전현상이 발생하면서 대학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다.

대학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특정 학과를 폐지 또는 타 학과와의 통합시키는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학과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이를 한국대학학회는 2015년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정책대안’에서 다섯 가지 사항으로 정리하였는데 구조조정의 강제성과 획일성 조속성에 대한 우려와 팽배, 대학 내부 의사소통 구조의 약화, 교육부의 통제강화, 대학교육의 질 하락, 교권 문제 등으로 보았다[2].

또한 대학은 내부의 단절된 의사소통으로 인해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방적인 학과 통합, 폐과를 진행하고 있다[3]. 고등교육의 산실인 대학의 구성원이라고 하면 학생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학생의 의견은 배제된 채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것이다. 사립대학의 경우 학생과 대학은 재학 계약관계에 있다고 보고, 학생은 입학한 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는 데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의 의견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그 결과가 통보되는 것이 현실적이다.

대학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대학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있으며 대학의 자율성 억압과 비교육적 방식의 구조조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논의한 연구[5]가 있다. 이 연구에는 앞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될수록 부실 사학재단과 구성원의 갈등은 더 심화 되고 분규 대학 수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허

창수(2016)의 연구에서는 구조조정 속 한국 대학의 현실에 대해 다루면서 구조조정의 진행 과정에서 공통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인 구성원 간의 갈등을 살펴보았다[2]. 구성원의 협의는 없거나 있더라도 형식적이고, 특히 족벌재단이 득세하는 대학은 교수협의회를 해체, 대학평의원회를 유명무실화하는 등의 대학이 많았다고 한다.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둘러싼 쟁점과 합리적 해결 방안에 대해 연구한 최호성(2012)은 한국 대학의 경영위기에 대한 현상 분석과 구조개혁 방향 및 내용을 검토하고 구조조정의 쟁점과 합리적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6]. 그밖에도 사립대 통폐합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7], 국공립대학 통폐합에 대한 인식도 조사[8], 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한 고등교육기관 통폐합 사례연구[9], 대학 구조개혁의 전개과정과 인식의 차이에 관한 연구[10], 한국 대학구조조정의 형태 변화에 대한 연구[11] 들로 이루어졌다.

이렇듯 대학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는 통폐합에 대한 사례와 인식에 대한 선행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학생들의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대학의 구조조정 상황은 아니지만 대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고 부당한 일이 일어날 때 분노를 느낀다고 한 연구결과[12]와 어떤 대상이나 중요한 것들을 잃었을 때 강력하고 복잡한 감정들을 겪게 된다는 선행연구[13]가 있다. 폐과의 경험 또한 자신의 의견으로 된 결정이 아니며, 중요한 것을 잃는 경험이 될 수 있다. 앞으로 학령인구의 감소와 수요변화로 인한 대학의 구조조정은 지속될 것이다. 구조조정 안에서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을 학생들에 대한 심리적 경험을 심층적으로 고찰하여 이들이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는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폐과를 경험한 대학생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폐과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 경험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참여자의 진술문에 대한 분석과 연구로 생생한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밝히는 방법으로, 도출된 구조 속에서 범주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어 경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14]. 따라서 현상에 대한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현상학적 접근에 기반한 심층 면담을 통해 폐과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것들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 II. 방법

### 1.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폐과를 경험한 대학생을 탐색하는데 있다. 폐과를 경험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가 부족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주제에 대한 탐구적 접근과 민감하고 정서적으로 깊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 연구자는 질적 연구방법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폐과의 경험을 통해 실제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살아있는 경험에 대한 이해를 얻고자 폐과를 경험한 대학생들의 삶으로부터 심층 면담을 통해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질적 연구 방법 중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체계적인 분석방법과 과정을 통해 인간의 내적과 외적 의식 속의 현상의 본질을 기술하는 과학적 연구방법이다[15].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적 폐과 경험을 밝히고, 연구 참여자 개개인들이 경험한 상황과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Giorgi현상학적 연구방법론이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자는 연구의 선입견이나 가정을 배제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자료를 조사함에 앞서 연구 참여자들과 신뢰 가능한 라포를 형성한 후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대학생의 폐과 경험은 무엇인가?” 이다.

###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의미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는 목적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생들 중 폐과를 경험한 G대학교의 4학년 학생 6명으로, 본 연구의 참여의사가 있는 학생들로 구성이 되었다. 참여자들은 대학입학 후,

1학년 1학기쯤 학과가 폐지된다는 소식을 주변인들로부터 듣게 되었다. 다음 해 신입생들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본격적으로 폐과를 인정하게 되었다. 본 참여자들은 현재 4학년으로 졸업까지 학사과정이 인정되지만 졸업 이후, 자신들이 졸업한 학과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표 1. 연구대상자

| 구분   | 연령 | 성별 | 계열     |
|------|----|----|--------|
| 참여자1 | 23 | 여  | 보건과학계열 |
| 참여자2 | 22 | 여  | 보건과학계열 |
| 참여자3 | 23 | 여  | 보건과학계열 |
| 참여자4 | 24 | 여  | 보건과학계열 |
| 참여자5 | 23 | 여  | 보건과학계열 |
| 참여자6 | 24 | 여  | 보건과학계열 |

### 3. 연구의 엄격성 및 윤리적고려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Guba와 Lincoln(1985)의 질적 연구의 평가 기준인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을 고려하였다[16]. 첫째, 연구자는 심층 면담을 통해 응답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참여자에게 확인하는 검토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사실적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 3인에게 연구의 결과가 폐과에 대한 대학생들의 경험을 잘 대변해 주는지 점검하여 연구의 적용 가능성을 충족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일관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상담연구 방법론을 교수하는 전문가와 질적 연구방법을 연구하는 박사 1인에게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넷째, 연구의 중립성을 위해 연구자의 사전 지식, 판단, 편견, 선이해를 점검하고 현상학적 환원 태도인 괄호 치기를 통해 경험의 본질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참여자들을 보호하고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자발적 결정권을 존중하였고,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면담의 내용이 녹음됨을 알려주었다. 연구의 목적과 면담 소요 시간, 필요시 추가 면담이 있다는 것과 자료는 비밀보장과 함께 연구종료 시 녹음내용과 전사내용은 폐기됨에 대한 연구 동의를 구한 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4. 자료수집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7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에게 면담을 통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 의사 여부를 확인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안내와 녹음 여부, 익명성 보장, 연구 결과 제시, 연구윤리 등을 알려주고 심층 면담이 진행되었다. 면담은 1대1 면담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에 따라 1회-3회 면담이 진행되었다. 면담과 전화면담을 통해 더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면담을 진행하였다. 진행시간은 1회에 60-9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 장소는 연구자의 상담실과 참여자가 접근하기 쉬운 조용한 커피숍에서 진행하였다. 면담 기록은 녹음과 함께 참여자의 비언어적 표현을 놓치지 않게 현장의 생생함을 노트에 기록하였다. 면담은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내용은 폐과를 경험한 대학생의 경험적 본질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자 면담내용을 Giorgi가 제안한 현상학적 연구방법 4단계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17]. 1단계에서 심층 면담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읽고, 개방적인 태도로 연구 참여자의 표현을 의미 그대로 이해하고 전체적인 느낌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2단계에서 연구 참여자의 진술문 중에서 폐과의 경험에 대해 잘 나타난 문장이나 문구에 초점을 맞추어 의미 있는 문장을 추출한 후 의미 단위로 구분하였다. 3단계에서 의미 단위들을 조합한 후 주제화하고, 중심의미를 학문적 용어로 변경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4단계에서 중심의미들을 재배치하고, 중복되는 진술은 삭제하며 구조적으로 통합하였다. 드러난 주제 16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총 8개의 본질적 주제가 추출되었다. 대학생들의 폐과 경험을 적절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맥락을 고려하여 구성요소들을 통합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다.

자료의 분석과정 및 결과도출을 위해 상담심리학 전

공 교수 1인, 질적 연구방법론을 이수한 이학박사 1인이 공동 참여하였다. 본 연구자도 질적 연구 1편을 쓴 경험이 있고, 질적 연구방법론 강의를 이수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는 대학생의 폐과 경험에 대해 68개의 중심의미, 16개의 드러난 주제, 8개의 본질적 주제로 도출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폐과를 경험한 대학생의 현상학적 구성요소

| 본질적 주제             | 드러난 주제              | 중심의미  |
|--------------------|---------------------|---|
| 심리적 어려움의 촉발사건      | 학과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소식  | -흔들리는 마음 : 다른 길을 가야하는 걸까<br>-우리 과 모두가 어려운 상황<br>-확실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의문점과 애매함<br>-일방적인 '통보'<br>-살면서 겪을까 말까 한 일을 겪음   |
|                    | 폐과소식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   | -꿈꾸는 듯 믿기지 않는 사실<br>-앞이 캄캄하고 패닉 상태<br>-공든 탑이 무너진 느낌<br>-스트레스 백점 만점에 백점  |
| 폐과결정에 따른 부정적인 정서심화 | 믿을 수 없는 사실과 혼란      | -제 3자를 통해 폐과 사실을 듣게 되면서 학교와 교수님에 대한 배신감<br>-학과가 없어진다는 허무함<br>-폐과가 된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는 답답함<br>-폐과임에도 우리를 뽑은 것에 대한 의문과 어이없음<br>-뒤통수 맞은 기분<br>-응당이에 빠진 기분<br>-정확하지 않은 정보들로 인한 혼란함<br>-학교 홈페이지에서 학과 설명이 사라진 것을 확인 후 모호한 기분 |
|                    | 부정적인 감정의 경험         | -학과가 없어진다는 소문들과 주변에서의 계속적인 물음들로 인한 불안감<br>-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br>-좌절감, 절망감, 배신감의 감정을 동시에 느낌<br>-진과, 편입, 자퇴하는 친구들을 보며 절망감과 당황스러움  |
| 미래에 대한 불안감         | 취업과 진로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 | -교육,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혼란스러움<br>-취업 스트레스<br>-방향과 진로에 대한 고민<br>-스트레스로 인한 신체화증상 및 공황장애 증상   |
| 자포자기               | 전반적 의미상실            | -학교를 다니는 것에 대한 의미상실과 낮은 만족도<br>-학과 공부에 대한 의미상실<br>-방황의 시기<br>-꿈이 사라짐  |

|                |                 |  |
|----------------|-----------------|--|
|                | 자기비난            | -나의 선택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br>-사람(어른)에 대한 의심이 생김   |
|                | 가족에게 미안함        |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듦.<br>-가족에게는 폐과사실을 알리지 못함   |
| 부적절한 대우        | 교수님의 대처반응       | -교수님의 불확실한 반응과 안일한 태도<br>-학과명칭이 개명 될 꺼라는 희망고문<br>-버려진 아이들 같은 기분<br>-소외당하는 느낌   |
|                | 학교의 대처반응        | -학교 측에서의 소홀한 대처, 부당한 대우<br>- '지원' 과 '해결방안제시' 가 없음  |
| 어려움의 극복을 위한 노력 | 폐과에 맞선 시도와 좌절   | -학교와 교수님의 정확한 답이 없어 답답함과 허무함<br>-더 강하게 대응하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br>-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감   |
|                | 이해하기 위한 노력      | -교수님과 학교에 찾아가서 폐과의 이유에 대해 물음<br>-많은 시도를 했지만 바뀌지 않는 현실  |
| 후회와 아쉬움        | 학교생활의 아쉬움       | -휴학할 수 없는 아쉬움과 억울함<br>-휴학 후 돌아올 수 있는 과가 없어진다는 상실감<br>-자유롭지 못한 과목 선택  |
|                |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을 후회 | -무조건 포기했음에 대한 후회<br>-방황한 것에 대한 후회  |
| 수용하기           | 버틸 수 있게 해준 힘    | -힘들을 함께 겪은 동기들의 힘<br>-가족과 친구의 긍정적인 영향과 지지<br>-전공공부에 대한 만족감<br>-학과는 없어지지만, 꿈은 포기하고 싶지 않음<br>-폐과는 되었어도 취업은 할 수 있다는 믿음<br>-불안으로 인한 극복<br>-나를 일깨우는 질문들로 마음의 중심을 잡음<br>-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br>-혼자만의 시간으로 생각정리 |
|                | 자기발전 을 도모       | -비운 뒤 땅이 굳는다<br>-긍정적인 인식으로 초점이 변경<br>- '이겨나가는 힘' 이 생김<br>-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배움<br>-지나고 나니, 받아들이게 됨(수용)<br>-이미 없어진 물에 미련 두지 않기<br>-전화위복의 기회<br>-과거보다 미래에서 긍정성 찾기<br>-꿈을 향한 굳은 의지<br>-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 |

## 1. 상황적 구조기술

### 1.1 심리적 어려움의 촉발사건

학과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소식, 폐과 소식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함. 연구 참여자들은 폐과 소식을 듣고 난 후 살면서 한 번이나 겪을까 말까 하는

일을 겪었다며, 처음에는 믿기지 않고 꿈만 같은 사실이었다.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는 확실하지 않은 여러 가지 소문들로 인해 의문점이 들었고,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다.

“예고가 있었나? 그냥 바로. 통보식으로 받았어요. 협의도 협상도 토론도 없이. 소식을 들은 게 아니고 통보였죠. 통보를 받았을 때는, 무슨 소리지? 이 학교에 우리 과가 없어서 우리 후배가 없다는 게 허무하기도하고, 우리가 마지막에 졸업해버리면 아예 안 남는거니까.” (참여자2)

### 1.2 폐과 결정에 따른 부정적인 정서 심화

믿을 수 없는 사실과 혼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함. 참여자들은 대학입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폐과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여러 가지 감정들을 겪게 되었다. 주변에서 들리는 폐과 소식들로 인한 불안감과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로 인한 혼란스러움을 겪었다. 허무함과 그로 인해 좌절감, 절망감, 배신감을 동시에 느끼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정확한 이유도 알 수 없는 답답함을 느끼며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기분을 갖게 되었다.

“그때의 감정들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마이너스 100점을 주고 싶어요. 그때.” (참여자 2)

“너무 배신감이 엄청났어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없어졌다는 소문 들으니까.” (참여자 5)

### 1.3 미래에 대한 불안감

취업과 진로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함. 연구 참여자들은 앞으로 남은 교과과정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폐과가 이루어진 학과에 대한 전공으로 취업은 할 수 있을지? 미래와 진로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방향의 시기를 겪게 되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화 증상과 공황장애 증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게 없어진다면, 나중에 취업할 때 어디 대학 어디 과를 나왔냐고 할 때 없어진 과를 말하게 되는거예요. 취업문제가 제일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참여자 1)

“입원을 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처음으로 입원해봤어요. 2주 넘게 입원했어요.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스

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참여자 5)

#### 1.4 자포자기

전반적 의미상실, 자기 비난, 가족에게 미안함 등을 경험함. 프랭클의 로고테라피에서 인간의 주된 관심사는 쾌락을 즐기거나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하였다[18]. 의미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폐과 소식을 들은 후 학교를 다니는 것과 전공공부를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과가 없어져. 꿈이 없어져. 우리 전공이 없어져. 의미가 없어지는 거구나. 공부해도 공부가 안되죠. 공부가 써먹을 수 있겠나? 과도 없어지는 마당에.”(참여자 1)

자기 비난은 자기에 대한 죄책감을 주된 특징으로 가지고 있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결정된 학과가 폐과가 되면서 자책과 죄책감에 힘들어하였다. 스스로 비난하고, 가족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되었다. 가족 구성원에게는 폐과에 대한 사실조차 알리지 못하며 힘들어하였다.

“아빠랑 두 달 정도 말도 안 하고 싸워서 우겨서 왔는데. 그때 내가 왜 이 학교를 선택했지. 라는 생각만 들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선택해서 왔는데. 여러 가지가 다 그냥 내가 잘못된 거 같은 기분이었어요.”(참여자 2)

“애들이 과가 없어졌다는데 사실이야? 이거를 매번 물어보니깐. 뭐가 내 잘못이 아닌데 내 잘못된 것 같은 느낌.”(참여자 5)

#### 1.5 부절절한 대우

교수님의 대처 반응과 학교의 대처 반응에 대한 부적절한 대우를 경험함. 폐과 소식에 대해서 교수님과 학교 측에서의 다른 반응으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은 혼란을 겪었다고 하였다. 학교 측에서는 과가 없어질 것이라고 한 반면 교수님들은 이름이 바뀌어 다시 생길 수도 있다는 희망고문을 줬다고 하였다. 그로 인해 참여자들은 교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었다. 학교에서의 소홀한 대처와 부당한 대우들로 인해 분노감과 버려

진 아이 같은 느낌, 소외당하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교수님들을 잘 안 믿었던 거 같아요. 확답이 없고, 믿음이 없어졌어요. 교수님의 안일한 태도에도 정이 떨어지고, 학교에서도 그냥 버려진 아이들 이야기 들어주듯이 대충 대했어요.”(참여자 1)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들이 많았어요. 학교 행사하면 안 좋은 자리, 작은 자리 주고, 과실도 늦게 고쳐주는 등 동등한 대우는 아니었죠.”(참여자 3)

#### 1.6 어려움의 극복을 위한 노력

폐과에 맞선 시도와 좌절 및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보는 경험을 함. 연구 참여자들은 폐과에 대한 소식을 듣고 교수님과 학교를 찾아가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 그러나 정확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면서 더욱 답답함이 커졌다. 폐과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지만 바뀌지 않는 현실에 무력해졌다. 더 강하게 대응하고 맞서지 못한 아쉬움과 함께 아무것도 해 낸 것이 없고, 할 수 없다는 무능감을 느끼게 되었다.

“저희 학년 전체가 세미나실에 모여서 학과장님이 궁금해한 질문의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과가 없어졌는지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어요.”(참여자 1)

#### 1.7 후회와 아쉬움

학교생활의 아쉬움과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경험들을 함. 연구 참여자들은 졸업하는 시점까지 학사과정이 보장되어있지만, 다음 학년부터는 학과 학생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참여자들은 다른 대학생들처럼 휴학을 해서 해외연수도 경험하고 싶고, 배낭여행, 아르바이트, 취업을 위한 준비 등을 하고 싶지만 휴학 후 돌아올 수 있는 학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하고 싶지만 정해진 과목을 들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폐과가 되니깐 휴학을 못하잖아요. 하고 돌아오면 있을 과가 없어지는 거 예요. 필수과목이 있는데 다음에 생길 줄 알고 안 들었던 것도 개설이 안 되니깐 계절학기 때 돈을 내서 들어야 하고 불편해요.”(참여자 2)

폐과 소식 후 다양한 감정을 겪고 전반적으로 의미를 상실하게 된 연구 참여자들은 방황의 시기를 보냈다.

학교를 가지 않고, 학과 공부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방황을하다가 가족과 주변의 영향으로 인해 방향했음에 대한 자신을 바라보고 후회를 하게 된다.

“아무리 과가 없어졌다고 해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됐는데, 나는 그게 아니었다. 나는 무조건 포기를 해버렸다는 생각에 더 울었어요.” (참여자 1)

“나만 잘하면 되는데 왜 이리지? 이제 흔들리지 말고 같이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참여자 5)

### 1.8 수용하기

버틸 수 있게 해준 힘과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이며 긍정적인 자기 성장을 위한 노력하는 계기가 됨.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폐과의 상황에 놓이게 된 연구 참여자들은 여러 심리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졸업 시점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었다. 그들을 버틸 수 있게 해준 가장 큰 힘은 같은 상황에 놓인 동기들이다. 남아 있는 동기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이끌어주고, 힘을 실어주며 포기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었다. 또한 가족과 친구들의 긍정적인 영향과 지지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폐과는 되었지만 졸업과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이 생겼고, 꿈을 이루고 싶다는 소망이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혼자만의 시간으로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으로 학과 공부를 지속할 수 있었다.

“과가 없어지니깐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임상 실습도 빨리 나가고, 더 많이 경험하려고 노력했던 거 같아요. 더 하지 않으면 안 될 거 같고, 내가 뒤쳐질 것 같고.” (참여자 5)

개인적으로 겪는 다양한 외상 경험을 통해서 심리 장애를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외상 경험 이전의 적응 수준으로 회복하거나 외상 경험 이전보다 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기도 한다[19]. 폐과라는 외상을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도 부정적인 인식에서 긍정적인 인식으로 초점이 변화하면서 외상 후 성장한 모습을 보인다. 지나간 일이기에 이해하고 수용하기로 하면서 과거보다 미래에서의 가능성과 긍정성을 찾기 시작하였

다. 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꿈을 향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극복하니깐 조금씩 변했어요. 생각하는 것이 변했어요. 초점이 바뀌었는지. 안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바뀐 거 같아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거 같아요. 긍정적인 변화예요.” (참여자 1)

## 2. 일반적 구조기술

연구 참여자들 경험의 관점에서 일반적 구조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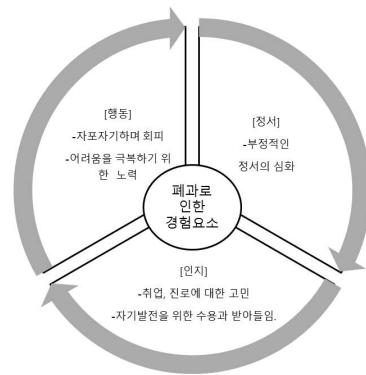


그림 1. 대학생의 폐과경험에 대한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

대학생들이 학교를 입학하여 새 학년, 학기에 적응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학기가 시작하고 폐과의 소식을 들은 학생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촉발사건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폐과가 결정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정서의 심화(정서적 차원), 자포자기하며 회피하는 행동(행동적 차원), 취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인지적 차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행동(행동적 차원), 수용하고 받아들임에 대한 자기발전(인지적 차원) 등의 5가지 경험요소들과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폐과에 대한 경험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선택한 학과가 폐과가 된다는 경험은 개인의 성격특성이나 받아들여지는 강도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의 선택이든 타인의 선택이든, 학과를 선택하고 선택한 학과가 폐과된다는 경험은 학

생들 입장에서는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기에 충분한 촉발사건이었다.

폐과에 대한 주요 경험요소들은 정서, 인지, 행동의 3가지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폐과가 결정되고 통보처럼 받아들여져야 했을 때 정서적 차원에서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대한 혼란스러움과 불안감, 절망감, 배신감, 허무함, 답답함 등의 부정적인 정서들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감정들을 표출하기에는 가족에게 미안하고, 학교 측에서는 받아주지 않는 감정으로 스스로가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부분들의 정서를 경험하면서 행동적 차원에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학교를 다니는 것에 대한 의미상실과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반면에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는 등 혼재된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폐과를 경험한 대학생들의 경험과정 5가지 요소들은 인과적·순서적 개념이라기보다 폐과에 대한 경험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폐과를 경험한 대학생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 이러한 경험이 어떤 인지, 정서, 행동의 특성을 보이는지 알아보려 하였다. 폐과를 경험한 6명의 대학생을 심층 면담을 통해 경험의 본질을 살펴보고, Giorgi의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드러난 주제 16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총 8개의 본질적 주제가 추출되었다. 선행연구들이 통폐합에 대한 사례와 인식들에 대해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폐과를 경험한 대학생의 심리적 경험을 심층적인 내용으로 밝히려 하였다. 연구의 객관성과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구술자료와 기록자료를 반복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폐과에 대한 소식을 접한 후 심리적 어려움의 촉발사건에 대해서 도출되었다. 친구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폐과가 된다는 뜬구름 같은 소문을 듣게 되면서부터 불안한 마음

과 불확실한 사실에 의문점이 들게 되었다. 폐과가 된다는 통보를 통해 다른 길을 가야 하는지 마음이 흔들렸고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다. 학과를 선택한지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아서 소식을 접한 신입생들은 답답했을 것이다. 이는 대졸 신입사원들은 회사의 가치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로 이직 고민 상황에 대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설명한 연구와 일치하다[20].

둘째, 참여자들은 폐과 소식 후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가 심화 되어 감을 경험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과가 없어진다는 소문들과 주변에서의 지속적인 물음들로 인해 불안감을 느꼈다. 제 3자를 통해 전해 들은 폐과 소식은 학교와 교수님에 대한 배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정확하지 않은 여러 정보들로 인한 혼란함을 겪게 되었으며, 전과와 편입, 자퇴하는 친구들로 인해 절망감과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학과가 없어진다는 허무함과 폐과가 된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는 답답한 감정을 느꼈다. 폐과임에도 참여자들을 입학시킨 것에 대한 의문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감과 불안함이 들었다. 좌절감, 절망감, 배신감, 뒤통수 맞은 기분, 웅덩이에 빠진 기분 등 폐과로 인한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폐과에 대한 경험은 참여자들에게 자포자기하고, 자신을 비난하며, 가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까지 생겨서 전반적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충격적인 외상 경험으로 인해 방황의 시기를 지내면서 학교와 학과, 전공 공부에 대한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그와 더불어 취업과 진로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도 심화되었다. 폐과가 확정된 후 남은 교육에 대해서는 어떠한지, 미래는 괜찮을지 불안과 두려움이 앞섰다. 시대적으로 취업이 힘든데 폐과마저 되어버린 상황에서 취업은 할 수 있을지, 전공공부를 지속해서 비전이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취업과 미래에 대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화 증상 및 공황장애 증상을 보였다. 조영매(2017)의 연구에서 외상은 의식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며 응집성을 파괴하고 연속감을 심각하게 분열시킨다고 하였다[21]. 참여자들은 이를 마치 출구를 찾지 못하는 막막함으로 느끼고 있다. 실제 환경이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의식의 상태에 처해있는 것으로 직접적 외상



을 입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재경험이나 침습적 사고와는 다른 경험으로 볼 수 있다는 연구와 일치한다.

셋째, 폐과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의 감정 속에서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폐과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참여자들은 부당함에 맞서기 위해 학교와 교수님을 찾아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다. 폐과가 되는 진짜 이유에 대해 듣고 싶었고, 학교와 교수님에게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듣고 싶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폐과를 막고 싶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도와 물음에도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없었고, 어떠한 사실도 바뀌지 않았다. 폐과는 여전히 진행되었고, 더 강하게 대응하지 못한 아쉬움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감을 경험하게 되었다. 영국에서 시작된 Gap Year는 학업을 잠시 중단하거나 병행하면서 봉사, 여행, 진로 탐색, 교육, 인턴, 창업 등의 활동을 체험하며 흥미와 적성을 찾고 앞으로의 진로를 설정하는 기간이라고 한다[22].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휴학(休學)이라는 말로 흔히 사용한다. 한국 대학생의 경우 50% 가까이 휴학을 하며 자신들의 삶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러나 폐과를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은 휴학 후 다시 돌아올 과가 없어지기에 휴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졸업 학기까지 정해진 과목들을 수강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듣고 싶은 과목들을 들을 수 없는 아쉬움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참여자들은 4학년이 되었을 무렵 여러 가지의 감정과 상황을 겪으면서, 스스로 자기 발전을 위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스스로 또는 타인에 의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무조건 포기했음에 대한, 방향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되었다. 폐과라는 외상을 경험한 학생들은 서로 긍정적인 격려와 지지로 어려운 상황을 버틸 수 있었다. 같은 꿈을 가진 동기들의 공감과 격려, 함께함은 이들을 버틸 수 있게 한 가장 큰 힘이었다. 가족과 주변 친구들의 지지가 있었고,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 강한 마음이 있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기, 불안을 견디기 위해 더 열심히 했던 것이 지금까지 전공공부를 할 수 있고, 학과 생활을 버틸 수 있게 해주었다. 외상을 통해 긍정적으로 성장하게 된 학생들은 부정적 인식에서 긍

정적인 인식으로 초점을 전환하게 되었다. 폐과라는 외상사건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과거보다는 미래에 긍정성을 찾으면서 꿈을 향해 더욱 열심히 하는 의지가 생겼다. 이는 조영매 연구(2017)의 본질적 주제에서 '자기를 초월하여 다시 자기로'의 주제를 보면 참여자들이 경험한 대리 외상은 성장으로 이어졌으며 이전의 자기를 초월한 후 다시 자기로 향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내용의 특징과 일치한다[21].

연구 참여자들과 폐과에 대한 경험에 대해 심층 면접을 하면서 앞으로 폐과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학생들에게 심리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보았다. 참여자들의 여러 의견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학교 측에서는 자료를 제시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 합당하지 않는 자료들로 인해 학생들은 부당함을 느끼게 되었다. 등록금을 내고 입학한 학생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둘째, 교수님들은 솔직하고 책임감 있게 학생들을 대해주어야 한다. 학생들은 교수님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배신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학교 측과 다르게 학과가 다시 생길 수 있다는 다른 정보를 제시하였다. 그로 인해 더 큰 혼란을 느끼고 희망 고문을 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셋째, 앞으로의 대안책 마련을 해주고, 방향 제시를 해주었으면 한다. 불확실한 미래는 불안감을 가중시킨다. 학생들에게 정확한 방향 제시, 대안책을 마련해 준 것이 없었다고 한다. 방향 제시를 해준다면 불안감이 완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폐과를 경험한 학생들에게 정서적 케어가 필요하다고 한다. 폐과로 인해 가장 큰 정서적 어려움인 불안감과 두려움,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진로상담도 병행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자는 심층 면담 후 연구 참여자들에게 인터뷰를 통해 느낀 점에 대해 물어보았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이 외상사건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 뿐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로 인해 성장한 자신들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학과 친구들이 아닌 타인에게 속을 털어나 시원함을 느끼게 되었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게 되

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자는 심층 면담 후 폐과를 경험하는 학생들이 폐과의 소식을 들은 직후에 생기는 부정적 감정의 심화들은 심리적 접근을 위한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폐과를 경험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도된 연구이다. 지금까지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법적, 구조적 관련 연구는 진행되었다. 그러나 학생을 위한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 폐과의 상황에 놓일 학생들은 증가할 전망이다. 이들을 심리 정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대책수립을 위해서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학생들을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폐과를 경험한 대학생의 외상 경험을 질적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폐과를 경험한 대학생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폐과를 경험한 대학생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가 같은 학과의 여학생 6명에 대한 연구결과로 폐과를 경험한 대학생에 대한 외상 경험을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추후 다양한 학교와 학과, 남학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폐과 상황을 경험한 현시점에서 바로 보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1학년 때 폐과의 소식을 접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한 후 4학년이 되었다. 그 상황에 대한 기억은 가지고 있으나 Here & Now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폐과에 대한 소식을 들은 직후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앞으로 양적 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1] <https://www.moe.go.kr>, 2017.8.30.  
 [2] 허창수, “구조조정 속 한국 대학의 현실,” 대학: 담론과 쟁점, 제1호, pp.111-128, 2016.  
 [3] 성연희, *대학구조개혁의 정책갈등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4] 김영옥,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5] 윤지관, “현단계 한국 대학의 위기 양상과 대학체제 개편 논의,” 동향과 전망, 제99권, pp.201-226, 2017.  
 [6] 최희성,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둘러싼 쟁점과 합리적 해결방안,” 수산해양교육연구, 제24권, 제6호, pp.901-919, 2012.  
 [7] 최보영, *사립대 통·폐합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사립대 통·폐합 실현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8] 김동규, *국공립 대학 통폐합에 대한 인식도 조사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9] 최경서, *융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한 고등교육기관 통폐합 사례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0] 이상연, *대학 구조개혁의 전개과정과 인식의 차이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1] 김일환, “한국 대학구조조정의 형태 변화에 대한 연구: 2003-2012,” 경제와 사회, 제110권, 제6호, pp.201-238, 2016.  
 [12] 전원희, 최은정, 조은주, “대학생의 분노 경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3호, pp.432-446, 2018.  
 [13] 김민경, 조성호, “청소년의 외상후 성장에 관한 개념도 연구: 상실 외상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제14권, 제2호, pp.259-279, 2017.  
 [14] 최선경, “1학년 시각장애대학생의 대학진학의 의미와 학교생활 경험에 관한 현상학 연구: 휴학의 기로에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8호, pp.36-50, 2018.

- [15] 노지현, “산업재해를 겪은 후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연구: Giorgi 현상학적 연구 접근,”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 제9권, 제1호, pp.315-347, 2015.
- [16] 도날드 폴킹혼, *사회과학방법론*, 일신사, 2003.
- [17] Amedeo Giorgi,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Duquesne, 1991.
- [18] Viktor Emile Frankle, *The will to meaning :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of logotherapy*, Penguin USA, 2014.
- [19] R. G. Tedeschi and L. G. Calhoun,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Vol.15, No.1, pp.1-18, 2004.
- [20] 신선임, 김수임,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의 이직 고민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상담학연구*, 제17권, 제3호, pp.503-525, 2016.
- [21] 조영매, “상담자의 대리외상 경험에 대한 현상학 연구 : 재난에 투입된 상담자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제18권, 제1호, pp.67-85, 2017.
- [22] [http://blog.naver.com/hi\\_nso/221071843078](http://blog.naver.com/hi_nso/221071843078), 2017.9.10.

최 민 희(Min-hee Choi)

정회원



- 2013년 2월 : 영남대학교 대학원 미술치료학 석사
- 2018년 2월 :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박사수료

<관심분야> : 상담심리, 미술치료, 트라우마치유

#### 저 자 소 개

김 택 호(Tack-ho Kim)

중신회원



- 1992년 2월 : 한양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상담전공)
- 2004년 2월 :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상담전공)
- 2007년 4월 ~ 현재 :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상담심리, 아동청소년상담, 미술치료